

소식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인천소식

김주희
인천일보 기자

개화기 사진엽서로 본 인천항

인천항토사연구회(회장 신용석)는 지난 6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천종합문예회관 전시실에서 '개화기 사진엽서를 통해 본 인천항과 월미도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열었다. 지난 1988년 첫 전시회를 가진 이래 다섯 번째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인천 개항 당시 항구의 모습과 축항 및 월미도와 관련된 희귀한 사진자료 120점이 선보였다.

신용석 회장이 소장한 3천여 점의 소장자료 중 엄선한 사진, 엽서들과 일본과 프랑스의 소장가로부터 수집한 희귀한 자료 등이 이번 에 모두 공개됐다.



김현숙 현대무용단 공연

김현숙현대무용단(대표 김현숙, 인천전문대학교수)이 지난 6월 5일 오후 7시 인천종합문예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오픈스테이지 SOMA 청춘>을 공연했다. <오픈스테이지 SOMA 청춘>은 3명의 안무자들이 청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한 각도로 연출한 작품이다.

김현숙현대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김현숙 교수와, 강희정, 최일규 씨가 각각 안무를 맡았다. 강희정 씨는 김현숙현대무용단 프로젝트 단원으로 일리노이대학교 무용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 귀국,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출강하고 있다. 또 최일규 씨는 동아무용공쿠르 금상을 수상, 현재 굿댄스컴퍼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무료.

인천 미추홀 문화회관 이전

현 시설부지에 인천시가 주차시설 건립을 계획하면서 폐쇄 위기에 몰렸던 인천시 중구 전동 2의 5 미추홀문화회관(관장 이관형)이 최근 신축중인 중구 보건소 내로 이전하게 됐다.

인천 미추홀문화회관은 지난 5월 18일 안상수 인천시장과 만나 문화회관의 이전 문제를 논의한 결과 회관 바로 옆에 신축 중인 중구 보건소 건물의 현 설계를 변경, 1개 층을 증축해 미추홀문화회관을 이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1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본격적인 이전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문화회관은 지난 2001년 옛 인천여고등학교 건물에 입주, 개관한 이래 5년 동안 중·동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연인원 1만6천 명 이상의 회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회관은 연 100여 개에 달하는 문화강좌와 다양한 문화축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명실상부 중·동구 지역의 유일한 문화시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이 부지에 총

30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며 폐쇄 및 축소 위기에 몰렸다.

이에 회관측은 문화시설이 타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중·동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문화회관의 축소나 폐쇄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억누르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대안을 요구했다.

인천민예총, 문화정보 사이트 점검

인천민예총이 각종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인천지역 내 인터넷 사이트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연다.

인천민예총은 "인터넷 매체가 강력한 소통 도구로 자리잡고,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그 외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사이트에 담긴 콘텐츠의 질과 양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네트워크 등 각 사이트가 추구하는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한다. 지역 내 대표적인 문화정보 인터넷 사이트의 기획 취지와 콘텐츠 구성, 디자인, 인터페이스, 정보의 원천, 담당인력, 사용자 서비스와 피드백 상황, 개선 사항 등 정보를 살펴본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인천문화정보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세미나는 구월동 삶과 나눔이 있는 터 해사에서 열린다.

14일 인천종합문예회관(art.incheon.go.kr)에 이어, 부평풍물대축제(www.bpf.or.kr), 연수문화원(www.yeonsu.or.kr), 엔티켓

(www.enticket.com) 등을 살펴보고, 8월 30일에는 종합토론을 열 계획이다.

인천시립극단, 타스마니아 공연

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정진)이 지난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남구 인천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타스마니아>를 올렸다.

<타스마니아>는 윤대성 작, 박원경 연출로 현대인의 정신질환을 다룬 작품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상처를 보듬어 가는 과정을 그렸다.

제목 <타스마니아>는 호주 남단에 있는 섬의 이름이며, 이 작품에서는 어두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이상향을 뜻한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거나 망각되지 않는다. 타스마니아라는 이상세계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거나, 비록 타스마니아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완벽한 세상은 되지 못한다. 잊고 싶은 과거의 아픔이라 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윤석애 첫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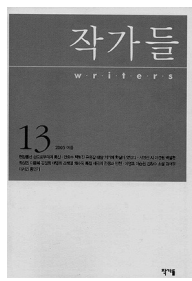
초원(蕉苑) 윤석애 문인화전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종합문화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의 노력을 문인화로 승화시키고 있는 여류 작가 윤석애의 첫 개인전이다.

작가는 서예와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산수(山水), 화조(花鳥) 등을 붓으로 재현했다.

윤 작가는 인천광역시 미술대전 대상을 비롯 단원미술제 문인화우수상, 국전 문인화 특선 2회, 입성 2회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수원대 미술대학원 문인화를 전공하고 있다.

제17회 인천서예대전 및 초대추천작가전



제17회 인천서예대전 및 초대추천 작가전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종합문화회관 대·중앙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사)한국서예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주최로 지난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응모전의 입상작 167점을 전시했다.

인천작가회의 계간지 『작가들』 출간

인천작가회의 계간지 『작가들』의 올 여름호(통권 13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제국의 전쟁과 인천'을 특집으로 내놓았고, 강화양민학살 유족회 대표를 만나 들은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다. 특집 '제국의 전쟁과 인천'은 청일, 러일, 한국전쟁을 통해 군참기지로, 보급기지로 그리고 상륙작전지로 풍랑과 격전의 현대를 온몸으로 지켜보았던 '인천'에 대한 서사다. 인현대 이용호 교수를 비롯해, 이승원, 김창수 씨 등이 글을 썼다.

올해로 54주기를 맞는 '강화도양민학살위령제'에서 유족대표를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유족대표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좌우익에 의해 자행된 강화지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체험과 연좌제로 고통 받았던 삶의 질곡을 털어냈다.

현장통신에서는 북방한계선을 축으로 한 서해 5도인 백령도, 연평도를 포함한 강화도에 이르는 '섬으로부터의 통신'으로 꾸몄다.

이경림, 박일환, 최성민, 이종복, 김정희, 조혜영, 채수욱 시인이 이번 시단에 참여했고, 김이정, 이서인, 홍인기 등이 단편소설을 실었다. 도서출판 작가들. 231쪽. 8,000원

송암문화재단 인천시에 기증

송암문화재단이 인천 송암미술관의 소유 부동산을 비롯한 소장품과 부속물 일체를 인천시에 기증했다. 재단은 지난 지난 6월 13일 송암미술관에서 인천시와 미술관 무상인수인계 협약을 체결했다.

기증 대상은 인천 남구 학익동 587 일대 미술관 부지 4,402평과 지난 1992년에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미술관 건물 765평, 소장미술품 8,437점, 부지에 심어진 955그루의 나무 등이다.

부지는 올해 기준시가로 85억 원에 이르며 건물은 취득시가 기준으로 39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격 산정이 어려운 소장품과 나무를 감안할 경우 미술관 매입가는 최소 1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암미술관은 1989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개관했던 것을 지난 1992년 인천의 현 부지로 이전해 온 것이다. 미술관에는 송암이회립 명예회장(동양제철화학)이 50여 년에 걸쳐 국내외에서 직접 수집한 고미술품 8,400여 점이 전시돼 있으며 사립미술관 규모로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국보급인 겸재 정선의 역작 <노송영지도>와 고암 이응노, 이당 김은호, 운보 김기창, 석파 이하응, 백범 김구의 친필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장승업, 심사정 등의 서화류 4,0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또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도자기 및 인장류 4,000여 점과 불상류 250여 점, 목판류 260여 점도 소장돼 있다.

특히 2001년 국내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7억원)를 기록했던 <노송영지도>도 이번 기증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협약식 체결 후 곧바로 인계·인수단을 구성, 인수물품 확인 및 소장품대장 등을 작성하고 미술관 운영 인력진단 및 운



영 예산 등을 산출, 내년 6월까지 재개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 송암미술관 운영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미술관을 시립박물관 분관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송암미술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현재 종사원 7명에 대해서도 고용을 승계할 방침"이라며 "특히 인수 협약식이 체결되면 미술관 내에 '기증자 코너' 등을 설치, 기증자의 뜻을 기리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소식 류주선
경인일보 기자

이영미술관, 첫 미디어 아트전시

박생광과 전혁립, 정상화 등 원로 작가들의 컬렉션으로 유명한 웅인 이영미술관(관장 김이환)이 2001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미디어 아트전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영미술관은 올해 박생광 작고 20주년을 맞아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박생광을 소재로 꾸민 <포스트 박생광전>을 지난 6월 14일 개막해 8월 3일까지 연다.

'108번의 삶과 죽음'이라는 타이틀로 연 이 전시회는 30대 젊은 미디어 작가인 문경원, 손병돈, 이승준, 이진준, 이한수 등 5명이 참가했다. 작가들은 각기 다양한 아이디어로 박생광을 기억하게 한다. 이한수는 <미지의 연습 2>에서 박생광의 오방색과 불교 소재들을 형광색을 칠한 다양한 오브제의 설치와 테크노 음악, 레이저 빔 등으로 표현했다. 또 이진준은 박생광 작품에 등장한 명성황후, 청담대사, 무녀 등을 선재 조각으로 표현하고 벽에 비치는 실루엣을 통해 다시 원작을 투영해내는 <하얀 숲>을 출품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연지 부관장은 "미술관이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을 보여주기 위해 젊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군포시 프라임필, <러시아 음악의 밤> 연주회

민간 악단인 (사)군포시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러시아 지휘자와 피아니스트 김대진을 초청해 제45회 정기연주회 <러시아

음악의 밤>을 지난 6월 1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연주회에선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 c단조 op.18> 그리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프로코피예프 발레 모음곡 <로미오와 줄리엣> 등 러시아 작곡가의 음악 세 곡으로 초여름 밤을 수놓았다.

지휘자 블라디미르 릴로프(57)는 러시아의 문화수도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신답게 호방한 서정과 서구적 세련미를 더한 해석으로 객석의 찬사를 받았다.

군포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프라임필은 민간 악단으로는 드물게 꾸준한 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지난 97년 창단 음악회를 시작으로 베를리오즈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브람스 음악의 밤, 바흐 서거 250주년 기념 음악회 등을 열었다.



경기도국악당, 경기소리 우수논문 공모

경기도국악당이 전통예술연구시리즈로 발간 예정인 『경기소리 1』에 수록할 우수 논문을 공모한다. 논문은 '동속민요'와 '잡가'를 주제로 해야 하며 대상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또는 휴학생, 수료자 등이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본문과 요약문 200매 내외이며 다른 간행물 또는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지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미발표 졸업논문은 가능하다. 기간은 7월 30일까지. 우수상 1편에 한해 150만 원의 상금을 준다.
문의: 031-289-6432(www.ggad.or.kr)

2005 세계평화축전, 18개국서 1천여 명 참가 예정

경기도가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최대

문화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평화축전에 전세계 18개국의 예술가, 평화운동가, 대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여 일 동안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개막하는 <2005 세계평화축전>(총감독 강준혁)에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분쟁지역 예술인 등 해외 17개국 110명이 참여하는 등 총 1천여 명이 출연하는 대규모 학술·문화 행사로 치러진다고 지난 6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평화·상생·통일·생명을 주제로 한 세계평화축전은 인류평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글로벌 페스티벌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라크 바그다드 오케스트라 등 중동 분쟁국의 예술단체와 대학생들이 초청되고 아제르바이잔, 영국, 루마니아 등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예술인과 젊은이들이 대거 참가해 학술대회와 토론회, 공연, 전시 및 체험 행사를 펼친다.

해외 저명인사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 오르타 외무장관,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테드 테너 전 CNN 회장 등이 올 예정이다.

행사 장소는 임진각·도라산역 등 DMZ 부근과 파주출판문화단지, 고양 킨텍스·자유로·예술마을헤이리 등이며 기부 프로그램인 생명촛불 파빌리온, 비폭력 트레이닝, 평화 프린지 콘서트, 예술 불꽃놀이, 얼굴전, 평화의 벽 꾸미기, 평화에 대한 단상 메시지전 등이 주요행사로 마련된다.

충청소식 이현숙
충청투데이 기자

극단 새벽의 <서툰 사람들>

극단 새벽이 제45회 정기공연으로 <서툰 사람들>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연극창고 새벽에서 무대에 올렸다. <서툰 사람들>은 연극연출가이며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작가 장진 씨의 희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작품은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과 기발한 착상 등 재기가 넘쳤다. 중학교 여교사인 '화이'의 독신자 아파트에 서툰 줌도둑 덕배가 침입하면서 극은 시작된다.

다. 이들이 벌이는 두 축의 줄기가 풍자와 위트로 작품 전면에 포장됐다. <서툰 사람들>은 시대상과 희극적 감성이 만난 연극이다. 새로운 희극양식과 신랄한 풍자정신, 현대사회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돋보였다.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풍자와 상황 전제가 등장인물들의 소시민적 캐릭터와 맞물려 친근함을 자아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예감을 갖게 한 연극이다.

연출가 위선일 씨는 “상호간 서툰 몸짓으로 열린 세계를 향하는 두 주인공의 만남은 처음부터 세상에 대한 뒤집기의 하나”라며 “이들 양상을 패러독스라는 연극의 한 단면으로 극화한 것이 연출의도”라고 말했다.

제30회 충북미술대전

충북미술협회가 주최한 제30회 충북미술대전 대상에 한국화 민호기 씨의 <봄소식>, 서양화 유아람 씨의 <틈>, 조소 정민용 씨의 <다이아트맨 2>, 공예 이재숙 씨의 <포옹 1>, 건축 전윤철 외 2명의 <기억의 깊은 곳을 향한 탐험>이 각각 차지했다.

올 미술대전은 예년에 비해 작품 수는 줄었지만 작품의 표현영역의 확대가 눈에 띄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평이다.

각 부문별로 출품작의 개별화와 장르별 경향의 다양성은 발전적인 면이었으며 전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 제작과정의 성실함 등이 작품의 수준을 높였다.

심사위원장인 충북대 이완호 교수는 “일부 작품에서 보여지는 높은 완성도는 장르의 다양화와 어우러져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며 “이러한 다양성과 충실도의 질적 수준은 지역 미술발전의 반가운 현상”이라고 평했다.

올 미술대전은 1차 심사를 가진 서예부문을 포함해 6개 장르에 441점이 응모, 이 가운데 대상 6점, 우수상 6점, 특선 59점, 입선 170점 등 총 241점이 선정됐다.

제14회 충북무용제

충북무용협회가 주최한 제14회 충북무용제가 6월 11일 오후 6시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올 무용제에는 이옥란 무용단의 <불안정 11>, 김진미 무용단의 <꽃처럼 죽다>를 비롯해 청주 시립무용단의 <장 서는 풍경> 등 3개 무용단이 선보였다.

<불안정 11>은 정상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는 춤. 침담한 현실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자신의 정체와 맑은 심성을 몸짓언어로 표현했다. 안무는 현재 서원대에 출강하는 이옥란 씨가 맡았다.

<꽃처럼 죽다>는 꽃무덤을 테마로 춤을 구상한 작품. 동서로 나뉘어 총부리 겨누던 땅, 전쟁의 북새통에서 잃어버린 가족사를 무용언어로 그렸다. 이름 없는 죽은 자의 혼을 이미지화 한 이 작품은 이야기의 전개보다 장면의 시각화에 주력,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했다. 안무는 청주대에 출강하는 김진미 씨가 맡았다.

<장 서는 풍경>은 옛날 시골장터 풍경을 해학적으로 묘사해 무대에 맞게 재구성했다. 소박하고 정겨운 시골장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춤이다. 안무는 청주시립무용단 비상임 안무자인 박재희 씨가 구성했다.

대구 · 경북소식

이경달
매일신문 기자

대구문화중장기 발전계획안 확정

대구시가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국·지방비, 민자 등 총 3조1천8억 원을 투입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대구문화중장기 발전계획 최종안이 확정됐다. 대구시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세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지역 문화인력 육성 및 지역 문화정책 개발 등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연구원 설립과 문화재단 건립이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또 국제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세우고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을 전시하는 국제청년작가 비엔날레와 예술 장르에 관계없이 다양한 청년문화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국제청년예술제도 개최된다. 이 밖에 도서관 6개소와 시립박물관, 방짜유기박물관, 대구시립미술관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판화로 만나는 독도 眞景

국립경주박물관은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독도의 진경(眞景)-현대 판화와의 만남> 전시회를 열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독도를 생활 속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미술가 18인의 판화작품이 전시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극단 공연

고려인 3세대들이 펼치는 뮤지컬 <고추는 작아도 맵다>가 5월 29일 오후 3시, 6시 대구문화회관에서 공연됐다. 무대를 꾸민 카자흐스탄 고려인 극단 ‘렘프라이트(대표 최따싸야나)’는 2003년 5월 카자흐스탄 한 인동포 극장인 ‘고려극장’의 배우 최따싸야나가 한인 청년예술가들을 모아 만든 단체. 고려인 동포 청년들이 자신의 문화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우리말 공연을 해오고 있다.

몽골 사진전



사진작가 강종진(40) 씨의 <몽골, 푸른 늑대의 후예>전이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사진전은 한·몽 수교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한 몽골대사관 주최로 마련됐다. 디지털 카메라로 몽골고원의 대자연의 앵글에 담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울란바토르에서부터 울란골, 험스갈에 이르기까지 45일간 1만km를 이동하며 느꼈던 몽골의 인간적인 모습과 자연이 소개됐다.

2005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일정 확정

오는 9월 말부터 10월 29일까지 열릴

2005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공연 일정이 잡혔다. 개막작인 이탈리아 베르디 살레르노시립극장 오페라단의 <리골레토(9월 29일~10월 1일)>를 비롯해 체코 프라하국립오페라단의 <아이다(10월 7~8일)>, 국립오페라단의 <카르멘(10월 14~15일)>, 대구시립오페라단의 <마르타(10월 27~29일)>가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부대행사로 오페라 인구 저변 확대와 그랜드 오페라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소 오페라 공연이 열린다. 서울대 <바스티앙 바스티엔>이 10월 12일, 중구문화원의 <버섯피자>가 10월 19일 대구보산문화회관에서 선보인다. 또 국립민속국악원(남원)의 창극 <춘향전>, 대구음악협회 주최로 전국성악경연대회도 개최된다.

경남소식

강동욱
경남일보 기자

경남예술한마당큰잔치 5월 28일 양산시

5월 28일 오후 7시부터 양산 종합운동장에서 제12회 경남예술한마당큰잔치 <양산시민과 함께하는 야외음악회>가 열렸다.

경남예총에서 마련하는 이 행사는 매년 도내 시군 1개 지역을 순회하는 종합무대행사로 경남예술인 300여 명이 만드는 도내 최대 단일 무대이다.

경남음악협회, 경남연예협회, 경남팝스오케스트라, 양산시립합창단, 경남 춤서리 무용단 등 도내를 대표하는 공연 예술단체가 참가했으며, 가수 테이, 프리스타일, 김태영 배일호 등이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클래식 종합 무대와 대중가수들이 흥을 돋우었다.

이번 무대의 특징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뮤지컬 <남태평양>과 <투나잇> <미션 임파서블> <올리브의 목걸이> <인빅타> 등 영화음악과 클래식 레퍼토리를 주요 테마로 했으며, 무용 공연도 파격적인 느낌을 주는 연극적 퍼포먼스와, 국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퓨전 형식의 새로운 형식의 무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경남예총 이영환 회장은 "열린 음악회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음악회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으나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순수예술 공연과 차이가 있

었다"며 "경남예총의 경남예술한마당큰잔치는 클래식과 현대적인 장르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을 중심으로 대중성 있는 레퍼토리인 쉬운 편곡, 파격적인 퓨전 스타일의 공연으로 클래식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한번 관람하신 분들은 순수예술의 아름다움과 대중예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거제 문예회관서 한국 펜클럽 한국본부 문학세미나 열려

5월 27일(금) 오후 4시부터 28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이사장 문호치) <2005년 문학 세미나>를 거제시 장승포 소재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국제 펜클럽 경남지역위원회(회장 강희근)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문학 속의 한국 역사'로 정했으며, 계명대 김일규 교수가 '문학 속의 한국 역사 — 그 병동, 그 수용소 군도', 동국대 홍신선 교수가 '역사의 담론과 시적 서술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날 개최식에서는 강희근 경남지역 회장의 개회사, 김한겸 거제시장의 환영사, 국제 펜클럽본부 문호치 이사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되었고 제3부에서는 박정희, 김태룡, 전길자, 권천학, 임신행, 김정희, 윤지영 등 시인들의 시낭송이 있었다.

대회 이틀째(28일)엔 대우조선해양 탐방, 거제해안 관광, 포루수용소 관람 등으로 이어지며 이 대회에서 국제 펜클럽의 독도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이 있었다.

강희근 회장은 "언론이 짧은 경남에서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경남 회원들의 역량이 그만큼 성숙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마도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고 '문학 속의 한국 역사'라는 담론을 개진하는 이번 행사가 벌써 잊혀져 가는 독도에 관한 국민적 인식과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성산아트홀 개관 5돌 기념 공연

국립오페라단의 <카르멘>

국립오페라단은 창원 성산아트홀 개관 5주

년 기념 공연으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6월 10~11일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무대에 올렸다.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카르멘>은 집시 여인 '카르멘'과 군인 '돈 호세'의 빛나간 사랑을 그린 비극 작품으로 1875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도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무대는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대 김덕기 교수의 지휘로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과 함께 170분 동안 카르멘 역의 추희명, 김신자 씨, 돈호세 역의 박현재, 한윤석 씨, 미카엘라 역의 정기욱, 김은주 씨, 에스카미요 역의 서정학, 김동원 씨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급의 성악가들이 출연해 주목받은 아리아를 들려주었다.

오랑주외의 야외배경을 무대로 이뤄진 이번 공연은 시원스럽고도 웅장한 분위기 안에서 스페인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극장에서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었으며 폐허 위에서 펼쳐지는 비극적이면서도 고뇌하는 작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정갈하면서도 역동적인 무대 이미지에 중점을 두어 절제와 고뇌, 그리고 역동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산국제연극제 돌섬서 개막

제17회 마산국제연극제가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마산 돌섬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극제는 일본 중국 등 해외 8개국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국내 60여 개 단체가 참가해 연극작품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와 음악 무용 등 풍성한 공연들을 펼쳤다.

2007년 세계연극총회 경남 개최를 위해 새롭게 섬이라는 무대에서 마련한 이번 연극제

는 야외 연극무대를 만들기 위해 마산 돌섬 내에 있는 하늘극장, 파도극장, 갈매기극장, 물개극장을 개 보수했으며 참가작들도 야외 무대에서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했다.

국내 작품의 경우 기존의 정극 중심으로, 해외 작품의 경우는 각 나라의 전통이 묻어나는 특색이 담긴 작품 위주로 구성된 이번 연극제는 낮 시간대는 모듬북, 풍물공연, 한국 전통무용, 록 페스티벌 등의 음악이나 무용 등으로 저녁 시간대는 연극공연 위주로 꾸몄다.

이번 연극제는 외국인 노동자 어울마당(21~22일), 술과 예술의 작은 축제(25일), 풍물 및 전통놀이 대회(26~27일), 소망 등 달기 청소년 가요제(28일), 개그콘서트(29일) 등이, 전시로는 경남민속공연전, 작고 마산 연극인전, 전국 술축제(21~25일) 등도 마련되어 다양한 부대행사와 참여행사, 학술행사, 전시 등이 연극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국 청소년 춤 축제 5월 28일 개최

2005 전국 청소년 춤 축제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마산 내서문화체육센터와 마산 돌섬 해상유원지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마련됐다.

이번 청소년 춤 축제는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올해가 두 번째 행사로 마산청소년발레단, 창원 김태훈 현대무용단, 부산 메트로발레단, 전북 정음리발레단, 경기 한가람예술단, 이원국 발레단 등 6개 팀이 참가했으며, 초청단체로는 숏마실 두레소리민속단, 박경량무용단, 마산무학여중무용반 등 5개 단체 등 경남 지역을 비롯한 서울, 경기, 부산, 전라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무용단체들이 참가해 각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8일 첫날은 내서문화체육센터에서 숏마실 두레소리와 마산무학여중무용반의 화관무, 정음 리발레단의 레이모나 1막, 한가람예술단의 모듬북, 화랑무와 이원국 발레단의 카르멘, 그리스인 조르바 등을 선보였다. 같은 날 돌섬에는 마산청소년발레단의 파티타,

김태훈 현대무용단의 추억여행, 메트로발레단의 프레스코 등의 작품이 무대에 올려졌다.

특히 춤 축제가 열리는 기간 중 29일에는 오전부터 지역의 청소년들과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무료발레강습회도 마련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무료발레강습회는 발레마스터 강민성 원광대 교수, 발레리노이자 이원국 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인 이원국 씨, 메트로발레단 예술감독인 발레미스트리시 김희옥 씨, 러시아 볼쇼이에서 20년간 활동하고 현재 모스크바 외교문화센터에서 클래식 발레를 가르치는 올가 미키나 씨가 참여해 발레의 기본적인 훈련과 작품구성, 표현 기술 등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함께 배워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평도 받았다.

경남여성작가회전

경남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경남여성작가회전이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창원성산아트홀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경남여성작가회는 회원수 70여 명이 넘는 경남 최대의 여성 그룹으로 98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해마다 마산·창원·거제를 오가며 전시회를 갖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 22명, 한국화 13명, 조소 2명, 공예·디자인 8명 등 30세 이상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입체·평면 작품을 선보이는데 생활 주위의 일상적인 모습과 인간 내면세계의 탐구, 주변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과 정물을 담아낸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서양화의 유희물감이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것에서부터 컴퓨터 작업을 접목시켜 미술의 확장을 꾀한 작품 등을 비롯하여 한국화 수묵의 다양한 변조와 폭넓은 채색, 백토와 분청토로 만든 도자기 등을 통해 도내 여성작가들이 한껏 발휘된 기량과 능력을 유감없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산소식

박성권
국제신문 기자

부산 조선통신사학회 발족

사단법인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는 6월 17일 부산 시청 동백홀에서 조선통신사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바탕으로 그 정신을 계승, 한일 두 나라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선통신사학회를 정식 발족시켰다.

조선시대 일본의 막부 장군에게 파견되었던 공식적인 외교사절이다. 일반적으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 후기에 모두 열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의 조선통신사는 선린후조적 성격과 문화전파자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학자들은 최근에 무로마치 막부(1338~1573) 때 혹은 그 이후의 기간에도 조선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일본에 보낸 조공 사절이란 주장으로 종종 우리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이날 조선통신사학회 창립총회를 겸해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국 일리노이대 문학부 아놀드 토비 교수와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었던 서울대 이원순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사회와 조선통신사' '한국사와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조선통신사학회는 오는 9월 6일 부산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마련, 조선통신사 연구자인 일본 교토예술단기대학 나카오 히로시 명예교수 등 국내외 학자들을 초청해 강연과 통신사와 문학, 접대, 회화, 음악 등에 대해 폭넓은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 황무봉 선생의 10주기 추모 공연

부산 출판의 정신적 지주인 고 황무봉(1930~95) 선생의 10주기를 추모하는 춤 공연이 6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황무봉 추모기념 사업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공연은 올해 10주기를 맞은 선생의 춤 세계를 제자들이 집중조명하고 있는 가장 큰 행사.

한국 신무용계의 천재적 안무가로 평가받고 있는 선생이 생전에 보인 각별한 제자 사랑

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그가 남긴 춤 유산을 제자들이 고스란히 복원한 작품과 창작 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다.



부산국제영화제(PIFF) 기념행사

올해 10주년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기념행사로 <PIFF가 추천하는 아시아 걸작선(PIFF's Asian Pantheon)>과 <APEC 특별전>을 마련한다. 또 아시아 전역의 유망 영화학도들을 초청해 교육과 교류의 장을 펼치는 아시안필름아카데미(AFA)도 처음 시작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6월 7일 부산해운대 시네마테크부산에서 '1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 6~14일 열리는 올



영화제 기간 중 마련될 특별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PIFF가 추천하는 아시아 걸작선>에서는 아시아 17개국 30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허우사오시엔, 마흐말바프, 키아로스타미 등 거장의 작품뿐 아니라 영화사에서 의미가 있으나 볼 기회가 적었던 영화들을 소개해 '아시아 영화의 허브'라는 PIFF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는 취지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를 기념해 '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APEC특별전>에서는 회원국들의 대표 영화 1편씩 모두 20편을 상영하고 초청된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과의 대화, APEC의 밤 등 행사에 참가한다.

'아시안 필름 아카데미'는 아시아 전역의 영화학도 28명을 선발해 실습과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고 미래를 이끌 영화작가들을 발굴하는 야심 찬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새 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끌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6월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수석지휘자로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다.

이번 무대에서 아니시모프는 조국인 러시아를 대표하는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의 곡들을 선정했다.

이탈리아 민요와 춤곡에서 받은 인상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풀어낸 차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에 이어 첼리스트 김호정과 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협주곡 제1번>을 들려줬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화려한 하모니와 생동감이 살아 있는 <심포닉 댄스 작품 45>를 선보였다.

아니시모프와 부산시향 단원간의 호흡도 잘 맞아 앞으로 부산시향의 연주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광주소식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광주를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아시아 민중예술단체들이 5·18 광주항쟁



을 무대에서 재현하고, 국가간 교류방안을 모색하기위한 '2005 아시아인의 한마당'이 5월 21~27일까지 5·18 자유공원, 5·18 기념문화관 등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조동수)가 주최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광주의 아시아 문화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과 나눔을 위한 아시아의 문화예술교류와 연대'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홍콩 플레이백(Play back) 극단과 일본 마당 빛 2005극단, 북경 '체 게바라' 극단 등 국외 8개 팀, 국내 5개 팀 등 모두 5개국 13개 민중예술단체들이 참가했다.

홍콩의 플레이백 극단은 5월 25일 5·18 자유공원에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광주항쟁 퍼포먼스를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5월 23일에는 대만과 일본의 노래패와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가한 '아시아 콘서트'가 열려 국경을 초월한 아시아의 연대를 보여주었다. 특히 행사 참가자들은 5·18 자유공원 영창과 내무반에서 숙식을 해결, 광주민중항쟁의 희생과 나눔의 정신을 체험하기도 했다.

조동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아

시아인들의 문화 예술적 교류를 통해 상생과 나눔, 연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주 시립미술관 · 뉴욕 퀸즈미술관 교류전

역동적인 뉴욕 현대미술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화제다.

광주 시립미술관(관장 오건탁)과 뉴욕 퀸즈미술관(관장 탐 핑커펠)은 6월 17일~10월 9일까지 시립미술관 본관 1층에서 미술교류전을 갖는다.

약 100여 일 동안 펼쳐질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03년 10월 뉴욕 퀸즈미술관에서 개최된 <동쪽의 물결>전에 대한 답방성격으로, 광주 청년작가 3명과 뉴욕작가 6명 등 모두 9명이 참가한다. '759 Running Feet:움직이는 벽'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류전은 공공미술의 성격이 강한 벽화를 테마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 전시회와는 사뭇 다르다. 전시회 타이틀 '759 Running Feet:움직이는 벽'은 시립미술관 1층 전체 벽면의 길이(m)를 미국식 표기(feet)로 바꾼 것으로, 양국의 참여작가들은 759 feet의 미술관 내부 벽면을 캔버스 삼아 각자의 조형세계를 글과 드로잉으로 가득 채웠다.

광주에서는 독특한 색깔로 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30대 청년작가 김희석 · 박소빈 · 주홍 씨가, 뉴욕에서는 로안린더, 빙리, 패트릭 자라테, 엘렌 하비, 치트라 가네쉬, 그리고 광주출신으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성 씨가 참가했다.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평강공주 이야기가 새로운 형식 아카펠라 뮤지컬로 각색돼 광주지역에서 공연됐다.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簡多)'는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를 6월 15일 오후 7시 광주 북구 문흥동 근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무대에 올렸다.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簡多)'는 한국 예술종합학교 출신들로 뭉쳐진 젊은 창작집단으로 이번 공연은 광주 북구문화의집이 지난 2003년 문화도시락으로 시작한 문화예술공연 2005년 첫 번째 무대다.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는 고구려 평원왕 시

대(평강공주의 신랑 바보온달이 후주국을 물리치고 장군이 된 바로 그 시기) 평강공주를 보필하던 시녀 연이의 이야기다. 항상 공주가 되기를 꿈꿔왔던 연이는 공주의 소장품을 훔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다. 그러다 평강공주 최고의 애장품 '거울'을 훔치고 달아나 자신의 동굴에서 잠이 든다. 잠에서 깨어난 연이는 숲 속에 사는 야생소년을 만나게 된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자신을 따르는 야생소년에게 연이는 자신을 평강이라 소개하고 자신만의 온달이 생긴 듯, 그리고 자신이 평강이 된 듯, 여러 가지를 가르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이내 연이는 평강공주와 자신의 모습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야생소년에게 말하기로 결심한다.

잘 알려져 있는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요즘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각색하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안문화공간 '자산갤러리' 오픈

최근 광주지역의 청년작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유망한 청년작가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대안문화공간 '자산갤러리'(광주시 동구 자산동 엔터빌딩 지하 1층)가 5월 20일 개관했기 때문이다.

조선대 후문 부근에 위치한 50평 규모의 '자산갤러리'는 지역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업 갤러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문화공간을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게 '쾌척한' 주인공은 (주)삼승건설의 이승기 회장. 평소 주위로부터 자신의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싶어도 전시장을 빌릴 만한 여유가 없는 작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어 있던 이 공간을 갤러리로 단장한 것. 그는 또 갤러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서양화가 조윤성 씨를 전시기획 등을 총괄하는 전시실장으로 위촉했다.

조윤성 실장은 "젊은 작가들의 발표공간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주작가들을 외부에 '홍보' 할 생각"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작가지원

공모를 통해 실력 있는 작가들을 발굴·육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갤러리는 개관기념전으로 5월 20~26일 14일까지 김영태, 손봉채, 윤 익, 이이남, 정기현, 정정주, 진시영 씨 등 영상·설치전을 개최했다.

전북소식

도 휘 정
전북일보 기자

2005 공개누드크로키

'몸이 동하면 외설이고, 마음이 동하면 예술'이라고 했던가.

인생의 무게를 옷과 함께 벗어 던진 모델과 모델의 몸 구석구석을 훑쳐내는 작가의 크로키는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다.

'2005 공개누드크로키'가 5월 28일 전주 민촌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민촌아트센터와 전북누드작가회가 1996년부터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누드크로키 현장에는 올해도 400여 명이 몰렸다.

올해 초대된 모델은 남 녀 모델 2명. 여자의 몸은 부드러운 선의 유희며, 남자의 몸은 꿈틀대는 근육의 힘이다. 삶의 회로애락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인체의 아름다움은 가장 적합한 대상이다.

모두가 숨죽이는 시간, 들리는 것은 종이 위를 재빠르게 지나가는 스케치 소리뿐이다.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속도감이 붙자 작가들의 손끝은 모델의 뒷모습을 급하게 뒤쫓아간다. 하나의 몸은 수백 개로 재구성된다. 붓, 연필, 콘테 등 각자 자신 있는 도구들을 들고 나왔지만, 끝끝내 모델을 잡지 못한 이들도 있다. 잡힐 듯 달아나는 모델의 포즈는 완벽한 예술을 탄생시키기 위한 작가의 간절



함이기도 하다.

공개누드크로키에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창규 원광대 교수가 '누드의 역사'에 대해 강의했다. 이 교수는 "그 동안 누드에 대해 관능적 차원에서의 편견이 있었지만, 인체의 누드는 관능적 눈이 아닌 심미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문서 영인본 발표회 김해정 우석대 교수

이제는 헤어질 대로 헤어져 책장을 넘길 때면 양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만 하는 고문서. 자칫 잘못하면 찢어지고 마는 책장은 기력이 쇠한 노교수와 닮아 있다.

그러나 닮아진 책장을 넘기는 노교수의 표정에는 국어학자로서의 책임감이 서려 있다. 자신의 역할이 그저 도움닫기에 그쳐도 좋다는 김해정 우석대 교수(65)가 19세기 말부터 1945년 사이에 발표된 중요 국어사 자료들을 영인본으로 발표했다. 『언역논어』 『언역맹자(상)』 『언역맹자(하)』 『언역대학, 중용, 사서석의』 『한영자전』 『한영대자전(상)』 『한 영대자전(하)』 『삼운성휘(상)』 『삼운성휘 보옥편』 『어록해』(홍문각) 등 총 9권. 8월 정년을 앞두고 주어진 휴식기에 책을 내기로 하고 지난해 겨울부터 매달렸다.

"책이 낡아서 떨어져 나가거나 글씨가 흐려져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책을 쓴 선인들은 나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한 글자라도 선부르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글씨들을 고증하려고 유사본이 있나 우선 확인하고 서지학을 따로 공부했죠."

옛날 자료를 복원하는 것은 글쓰기의 어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단순히 옮겨쓰는 것이 아닌, 책을 썼던 사람의 정신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10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김 교수에게 인내심이 없으면 이루지 못할 이 작업은 특히나 고행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전국의 고서점을 돌며 수집한 책이 1천여 권. 전주역사박물관이 고문서 전시를 위해 보험까지 들며 빌려갈 정도로 귀한 책도 여러 권이다. 두루말이 형태의 권자장(卷子裝), 병풍처럼 일정한 폭으로 접은 절첩장(折帖裝), 인쇄된 종이를 반으로 접어붙인 호접장(蝴蝶裝), 5개 구멍을 뚫어 오침안정법으로 만든 선장(線裝) 등 장정 형태도 다양하다.

"귀한 책들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1층과 2층 서재를 오가며 바람과 햇빛을 씌어줍니다. 혼자서 오르내리다 다친 적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다보니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 건강한 사람들도 차 보기 힘든 책을 밤낮으로 들여다보며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6시간.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만류도 소용없다.

"은고지신이란 말이 있죠? 옛날 것을 왜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옛 것이 좋고 옛 선인들이 좋아서지요."

김 교수는 벌써 없어지거나 오늘날 어법에 맞지 않는 고어체 문장도 국어학자에게는 소중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가 옛 책을 옮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후학들을 위해서다. 가람 선생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샀던 책들을 서울대 가람문고에 기증했듯, 자신도 후배들을 위해 그런 성의를 보이고 싶다고 했다.

고문서로 둘러싸여 있는 김 교수의 작업실에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컴퓨터 2대와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비디오가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갑갑하다"는 김 교수는 서툰 솜씨로 고문서 10벌을 일일이 스캔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해놨다. 나머지 고서들을 CD롬으로 만드는 것이 그가 평생을 해야 할 일이다.

노교수에게는 흐르는 시간이 아깝다. 전주에 책 박물관이 생기는 날, 기쁜 마음으로 기증해야 할 고문서 관련 자료들을 서둘러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주년 맞은 현대무용단 사포



"20년 전에는 현대무용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현대무용이 어렵다는 고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관객들이 많아졌지요."

출판이 척박했던 시절, 안무, 조명, 소품, 무대, 그들의 움직임은 곧 실험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의식이 높아진 관객들은 눈에 띄게 늘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큰 힘이고 보람이다.

지난해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초대된 '판소리와 춤-지울 수 없어라'로 호평을 받았던 현대무용단 사포(예술감독 김희숙 원광대 교수, 대표 신용숙 원광대 강사)가 창단한 지 20주년을 맞았다.

18회의 정기공연과 21회의 소극장 기획공연, 11회의 야외공연 등 현대무용의 불모지인 전북에 새바람을 일으켜온 사포는 지역 현대무용의 토대를 쌓고 가능성을 발견해 온 주역으로 꼽힌다. 1985년 11월 창단한 이후,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지역간

의 교류공연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에도 한몫해 온 사포의 발자취는 깊다. 예술이 시대의 흐름을 비켜갈 수 없듯, 사포도 시대마다의 이슈와 주제를 춤으로 풀어냈다. 동학농민항쟁을 다룬 '다시 핀 그대에게' (1996)와 남북 분단을 내용으로 한 '그들은 꿈꾸고 있었다' (1993) 등 근현대사를 재해석한 작품과 여자 단원들이 많았던 만큼 페미니즘을 외치는 무대도 만들었다.

해마다 오디션을 실시해 뽑는 사포의 현재 단원은 18명. 달마다 회비를 내고 공연에 출연하기 위해 개인이 의상을 맞추면서 공연을 치르면서도 단원들은 사포를 떠나지 못했다. 현재 사포를 이끌고 있는 신용숙 대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창단 멤버.

신 대표는 "조명 부를 처지가 못 돼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전주 총화탑에서 공연했던 일, 변산 해수욕장에서 새끼줄을 쳐놓고 공연했던 일 등 고생했던 지난날들은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경제적 여건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포는 20주년 기념신작 '그대여 돌아오라' (안무 김화숙, 대본 한혜리)를 12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 올려졌다.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 전봉준을 오늘에 되살리는 무대다.

"역사는 우리가 언제가는 해야 할 숙제처럼 생각됐어요. 광주민중항쟁 3부작을 95년부터 98년까지 끝내고, 20주년에는 이 지역 역사로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 대표는 "무용의 상징성을 위해 새로운 각도로 인물의 정신세계를 조명한 작품이다"고 소개했다.

동학의 영령을 부르는 사포의 초혼굿은 다소 무거운 프롤로그로 시작해 '해 돋는 나라'를



꿈꾸는 희망적인 에필로그로 끝이 난다. '오래된 함성'은 남자 군무로 농민군의 기백을 보여주며, 여자 군무로 펼쳐지는 '남루한 숨결들'은 남성의 활약상에 가리워진 여성들의 역할을 조명했다. '아무래도 나는 가야겠다'는 당시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삶의 무게를 소품으로 나타냈다. 신 대표와 사포 단원 이흥민 씨가 묻고 대답하듯 춤을 추는 비로소 그대 생각'은 전봉준의 강인함 뒤에 감추어진 심리상태와 내면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사포는 11월 말쯤 20주년 화보집을 낼 예정이다. 평론과 대본, 안무스케치 등 화보집에서는 사포의 20년 성장을 만날 수 있다.

근·현대 작곡작가 회고전

위대한 예술가들은 작품을 남긴다. 그리고 그들의 뜨거운 예술혼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고한 정신으로 작품 속에 살아 있다.

근·현대 작곡작가 회고전 <전북미술의 脈>이 7월 24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전북미술의 흐름을 이어내기 위한 이번 전시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활동했던 전북 연고의 대표적 작곡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했다.

문인화(15명), 한국화(18명), 서양화(18명), 조각(2명) 등 네 장르에서 19세기 초부터 1930년대 전반에 출생한 53명 작가들의 유작 160점을 모아냈다. 창암 이삼만으로부터 내려오는 전북서예의 맥은 방대한 양을 고려, 오는 10월 <전북서예의 역사와 동향전>으로 따로 꾸밀 예정이다.

문인화와 한국화 부문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전북이 강세였던 만큼 병풍 작품이 많다.

1808년 출생한 남곡 최석환은 이번 전시에서 탄생연도가 가장 빠른 작가. 포도의 잎과 열매를 잘 표현해 입체감과 변화감이 큰 포도그림으로 유명하다. 한국화에서는 초상화로 독보적 경지를 이룬 채용신의 <간재 전우상>과 현대적 감각의 활달한 필치와 독특한 색감이 돋보이는 이용우 작품, 1956년 제5회 국전 대통령상을 받았던 박래현의 <노점> 등이 전시됐다.

서양화에서는 전북 서양화단의 개척기인 1950년대 동광미술연구소를 창설한 김영창

의 <수국>과 박병수의 <정물>, 신상미술회의 주축이었던 이경훈 문운모 김용봉 권영술 천철봉 이복수 김현철 한소희 소병호 이준성 등의 작품이 공개됐다.

서른여덟의 나이에 요절한 진환의 유화작품 <牛記 8> <천도(天桃)와 아이들> <소 스케치> 등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함께 전시되며, 당시 추상미술을 주도했던 고화흠과 최대섭의 작품도 소개된다.

기록을 뒤져 60여 명의 작가들을 우선 선정한 뒤 호암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화랑, 개인 소장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작품들을 모아낸 이번 회고전은 지역 미술의 역사와 흐름을 살펴보고 전복 근현대미술사 정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최효준 관장은 "이 지역 근대미술의 역사가 시대에 의해 재평가 받는 기회인 동시에 전통을 이어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주소식

강태유
제민일보 기자

문화예술, 제주신화와 접속중

1만 8천 신들의 고향, 제주. 제주신화는 놀라운 이야기거리와 흥미진진한 스토리, 우수한 작품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로마 신화와 서구문화 유입 등으로 변방신세로 전락해 왔다. 그랬던 제주신화가 몇 년 사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 문화예술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제주신화는 지난해 8월 북군 구좌읍 송당리에서 열렸던 '불휘공 송당마을 신화축제'를 시작으로 12월에는 제주지역축제연구지원팀이 예산 35억 원을 들여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제주신화축제의 추진을 발표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놀이패 할라산은 하늘나라 꽃밭지기라 간 아버지를 찾아가는 남매 이야기인 '서천꽃밭 꽃감관 이야기'를 현대적인 해석과 어린이 정서에 맞게 각색한 마당극 <하늘나라 꽃밭지기>를 제작했고 최근에는 소설가 이석범 씨가 제주신화를 쉽고 재밌게 풀어쓴 <할로영산>이 잔잔한 인기를 구

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미술계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올해 화두가 제주신화가 아닐까 여길 정도로 제주신화를 형상화하는 작업이 발빠르다. 제주문화포럼 제주무속연구회 소속 화가 회원들은 일찌감치 제주신화에 그림을 접목하는 데 심취해 있고 갤러리 제주아트도 도내의 화가들의 그림을 가지고 제1회 제주신화미술제(7월)를 준비중이다. 화가 홍진숙 씨는 올해 여름 제주신화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제주신화와 관련해 예술계 관계자는 “제주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예술작품 출현은 대세다”며 “이런 현상들이 제주의 우수한 고유문화가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민중화가 장리석 화백 제주에 작품 기증

해방과 전쟁 이후 격변의 시대에 서민들의 애환과 질곡의 삶을 화폭에 담은 작가로서 박수근, 이중섭, 최영림과 더불어 한국화단에 독자적인 민중적 예술관을 세웠던 장리석 화백(90)의 작품이 제주에 기증된다.

장리석 화백은 지난 6월 3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도와 협약식을 맺고 자신의 미술작품을 기증키로 했다.

장 화백은 이날 자신의 작품 110점과 유품

화구들을 제주도에 무상 기증, 제주도는 이를 제주도립미술관에 상설 전시하여 보존하며 제주도립미술관에 (가칭)장리석 전시실을 마련하되 미술관 건축대 이 계획을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장화백이 제주도에 작품 기증할 뜻을 굳힌 것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0년 12월 월남해 제주도에서 5년 간 체류했던 인연에서 비롯된다.

장리석 화백은 1916년 평양에서 출생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다마천제국미술학교를 1938년에 졸업, 귀국하여 활동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 피난을 왔고 화백의 제주생활은 이후 전개된 자신의 예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향을 등지고 한반도의 최남단으로 내려온 화백에게 제주도의 해변풍경과 자연, 해녀와 조랑말 등은 화가의 그림움과 도전의 삶을 드러내는 귀한 소재들이었다고 한다.

장 화백은 이중섭미술관이 건립되기 이전 제주도의 피난화가 홍종명·이중섭·최영림씨 등과 함께 '피난작가 미술관' 건립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신나락, 토요일예술한마당 운영

제주역사가 숨쉬는 제주목관에서 전통문화를 지키고 있는 제주의 젊은 예술인들이 한데 모여 신명이 어우러진 전통음악의 향연을 펼쳤다. 풍물굿패 신나락이 제주목관아지에서 펼치는 토요일예술한마당 '신명으로의 초대' 공연.

토요일예술한마당 '신명으로의 초대'은 풍물굿패 신나락 복권기금을 받아 마련한 행사로 5월 2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다양한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제주목관아 연회각 앞마당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에는 풍물굿패 신나락을 비롯해 제주태소미, 놀무용단이 참여해 목관아의 단아한 분위기와 어울린 멋드러진 공연을 선사했다. 시원하면서도 야외공연을 관람하기에 적당히 흐린 날씨 덕에 이날 공연에는 어린이와 함께 나들이한 가족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200여 명의 관객들은 전통의 향연을 만끽했다.

이번 토요일예술한마당은 전문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의 젊은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풍물, 판소리, 춤, 대금, 가야금 등 저마다의 재주를 풀어놓아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지며 여러 종류의 전통예술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는 기회다.

신나락을 비롯해 놀무용단, 제주축향국악원, 가향판소리마당, 탈춤패 두루나눔, 제주청흥가야금연주단, 제주태평소모임, 무속인 정공철씨 등이 출연한다.

방선문에서 열린 계곡음악회

하천 가운데 거대한 기암괴석이 솟아 있고 맑은 시냇물, 무더기로 핀 진달래가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시 오동동 방선문. 지천에 피어나는 진달래와 철쭉으로 영주십경의 하나인 '영구춘화'라 불리는 방선문에서 지난 5월 22일 제주시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와 동굴소리연구회 주최로 2005 방선문 계곡음악회 '하라산 화유'가 열렸다. 영구춘화나 화유(花遊)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꽃과 어우러진 것이기보다는 맑은 바람과 신록과 어우러진 음악회다.

'신선을 찾아가는 문'이라는 뜻의 방선문은 절경에 이끌린 선비들의 풍류에 인간세계와 더 가까워졌지만 이날은 아름다운 세속의 음악이 맑디맑은 선계의 느낌을 한껏 살려냈다.

이날 음악회는 2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1부는 '영주십경'과 김영수 목사가 방선문 마애각에 남긴 오연율시 '환선대'를 강종화씨가 시조창으로 문을 열었고 신은숙 씨가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들려줬다.

2부는 지난해 10월 초연됐던 오페라 「제주기애랑」 갈라콘서트로 진행됐다.

방선문은 하라산 화유차 목사일행들과 나왔던 배비장이 기생 애랑의 목욕하는 모습에 상사병이 든 곳으로 판소리 '배비장전'의 무대가 되는 곳. 소프라노 현인애·김수정, 테너 현형복·강석진, 바리톤 전영환 등이 출연, '제주농부가' '길군악' '사대소리' 등 주요 아리아를 들려줬다.